

# 韓國 移民을 위한 社會福祉 體系에 있어서 改新敎의 役割\*

權 寧 姬\*\*

## I. 序 論

최근 美國 社會복지 분야의 추세는 연방, 주, 市 정부의 社會복지를 위한 財源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상호부조 *mutual aid*, 자원단체 *voluntary association*, 교회, 자조집단 *self-help group*, 친족 그리고 가정 등 타고난 비공식 보호체계 *indigenous informal care system* 를 잘 개발하거나 활용해서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복지활동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상호부조의식, 가족중심제도, 친지와 의 긴밀한 유대관계들 하나의 문화 가치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미국(예컨대 뉴욕시)의 한국 교포사회와 社會복지기관의 결여나 인적 자원의 막심한 부족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타고난 비공식 보호체계로써 이민 역사상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한국 개신교 교회의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미국에 있는 한국이민들에게 社會복지 활동을 가일층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코져 한 것이다.

## II. 理論的 背景

社會사업 초창기부터 강조되고 있는 *person-in-situation* 을 시점으로 해서

\* 본 논문은 필자가 미국 Columbia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Role in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를 요약한 것이다.

\*\* Adelphi 大學院 講師

근래와서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ecosystems theory<sup>1)</sup> 그리고 ego psychology의 action ego<sup>2)</sup> 등을 참조했다. 특히 ecosystem의 견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개인과 환경<sup>3)</sup>(인간이 만든 물리적 환경, 자연환경·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 환경)은 서로가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 가운데 상호적응에 힘을 기울여서 적응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불균형이 올 때는 긴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go psychology의 견해를 볼 때 인간은 나면서부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으며 또 성장 발달하려는 욕구와 기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하였고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성장과 발달은 그 개인의 타고난 잠재능력 한도에서 최고도로 발휘하느냐 여부는 개인이 처해있는 사회환경의 지지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sup>4)</sup>

구체적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의 지지적인 역할과 한국 이민들의 사회적 문제와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시점으로써 여기서 특히 Bronfenbrenner의 사회환경모형을 바탕으로 그의 이론인 생태환경 *ecological environment*와 개인과의 상호 관계를 검토코져 한다.<sup>5)</sup>

그는 자라나는 한 아동의 사회환경은 겹겹이 싸인 세의 동우리와 같은 구조라고 한다. 그 동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ecological schema*는 2人組 관계 즉 모자관계이며 그 다음 삼인조 그리고 사인조 등으로 확대 되어가며 이 한점 한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인조 관계 즉 母子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다음 점인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려면 그 다음 점

1) Germain, Caryl B.,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Case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July 1973, 54(7), 323~30

Meyer, Carol H., *Social Work Practice*, Second Edition, N.Y., The Free Press, 1976

2) Germain, Caryl B., "Ecology and Social Work," *Social Work Practice: People and Environments*, Carol B. Germain(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1~22

3) Germain, Caryl B., "General System Theory and Ego Psychology: An Ecological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December 1978, 535~549

4) Bronfenbrenner, Urie,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5) Murase, Kenji, "Minorities: Asian American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7th Issue, Vol. 2,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 1977, 953~960

인 친척관계, 이웃관계, 직장관계 등등의 지지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원리가 더 큰 사회구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Bronfenbrenner의 사회환경모형은 크게 네개의 수준(micro, meso, exo, mecro)의 환경 체계를 말하고 있다.

micro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며 직접 접촉하는 소형의 환경으로 가정, 직장, 학교, 탁아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직접적인 사회 환경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또한 개인도 이 소형 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meso는 여러 작은 micro 환경의 집단으로 meso의 둘째의 크기, 연결의 밀도와 존속도 그리고 다양성에 따라 개인의 social rich의 척도와 사회적 인 기능의 고저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모회의 일원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다른 학부모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학교라는 환경을 낯설지 않게 해주는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아니한 부모의 자녀보다 훨씬 학교생활을 더 원만하게 하며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이민들의 경우를 Bronfenbrenner의 관점으로 볼 때 먼저 이민은 동창이나 친척이 많고, 한국 개신교 교회의 일원이 되어 먼저 이민 온 사람들과 접촉해서 미국사회의 여러가지 정보를 얻는 이민들은 그렇지 않은 이민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미국생활에 적응하기 쉬울 것이다.

exo 체계는 개인에게 혹은 자라나는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으로 경찰서, 지역사회지도기관, 학교의 이사진, 市교육국의 회장단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등이 간접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macro 체계는 이 모든 겹겹의 환경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등우리의 겉틀레로써 큰 사회환경을 말한다. 이속에는 문화적 자치나 규범, 풍속, 언어가 다 동일하므로 한 macro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응, 균형유지에 큰 충격을 가져 오지 않으나 한 macro에서 다른 성격의 macro 체계로 이동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과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할 여건이 된다고 했다.

### Ⅲ. 實際的 背景

1965년 미 연방정부에 의한 이민법 개정 이후 과거 다수를 차지했던 영국, 불란서, 독일 등 북구라파로부터의 이민들의 숫자는 감소되고, 새로운 문결의 이민들이 남구라파, 남미, 아프리카, 카리비안섬, 중동 그리고 주로 아시아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중 한국 이민들은 1984년 이민국 조사에 의하면, 3만명 이상이 해마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들 이민들은 도시 생활에서 오는 주택난, 취업난, 의료혜택의 어려움 등에 추가해서 언어의 장애, 문화충격으로 인한 적응문제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Murase를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류 사회복지기관은 이들 이민들에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활발히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줄 대책도 없다고 했다.<sup>6)</sup> 또 Jenkins 등은 이민들의 여러가지 문제와 욕구들을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그 민족들의 단체들이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다.<sup>7)</sup> 필자도 이들의 연구에 참가해서 뉴욕市の 한국 교포사회의 한인회를 비롯한 몇몇 자원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한국 단체들은 주로 문화보존에 더욱 주력하고 사회복지 활동은 거의 부재함이 노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계기로 필자가 제기했던 의문은 ① 그렇다면 어느 기관이 뉴욕에 있는 한국 이민들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고, ② 개신교 교회가 복지 서비스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뉴욕市에는 1970년 중반 이후부터 금전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 기관들이 생성되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애 없이 한국 이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 개신교 교회는 근래에, 특히 1980년 이후에, 와서는 교인들의 신앙면에 더 치중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았다. 이런 사회적인 여건 하에서 필자가 모색코자 한 것은 뉴욕市的 한국 이민들의 사회적인 욕구와 문제는 무엇이며 뉴욕市的

6) Jenkins, Shirley, and Morrison, Barbara, "Ethnicity and Service Delivery,"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January 1978, 48(1), 160~165

7) *Ibid.*

한국 개신교 교회는 현제도 사회복지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만약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면서 정보제공 및 의뢰 등의 서비스는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코자 한 것이다.

#### IV. 研究 方法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는 뉴욕市の 5大지역 중의 하나인 Queens를 표본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전체 숫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다. Queens지역을 택한 이유는 1980년 뉴욕市 인구조사에 의하면 뉴욕市の 한국 이민들의 63%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1984~1985년 교회협의회주소록에 의하면 대 뉴욕지구의 70% 이상의 한국 개신교 교회가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총 개신교 교회수 70개 중 65개가 참여하였고 자료 수집의 대상자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있으며 자료수집도구는 32면으로 된 설문으로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에 걸친 면접조사이었다. 자료수집은 1985년 5월에 시작해서 그 해 12월 말에 끝냈다.

자료수집은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조사를 목표로 착수했다.

첫째, 한국 개신교 교회의 내적 구조 분석

둘째, 한국 이민 개신교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본 이민 교인들의 문제와 욕구

셋째, 한국 개신교 교회의 비 종교적 활동 즉 직접옹호 *direct advocacy* 정보제공과 의뢰 서비스, 그리고 가정문제 혹은 개인상담 서비스

넷째, 개신교 교회의 한국 이민 교인을 위한 민족 동일성 보존에 대한 서비스와 주류 사회 동화를 위한 서비스

다섯째, 개신교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은 여하하며 주류 사회나 교포지역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조와 유대관계

특히, 한국 이민들의 사회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이 9분야에 걸친 조사

를 하였다. 직장 혹은 취업문제, 주택문제, 의료혜택문제 및 정신건강문제, 법률문제, 교육문제, 재정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문제, 그리고 세 집단, 즉 노인, 부녀자, 청소년문제들을 조사했고 이민들을 1965년 이민 개정법 이후 '70년말까지 온 집단(정주자)과 1980년 이후에 온 집단(신이주자)로 분류하여 이 두 집단의 문제와 서비스 필요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의 복지 활동 전달 역할에 있어서는 다섯개의 가설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 V. 研究 發見

연구발견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 있는 다섯 가지 조사과제에 대한 반응을 순서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개신교 교회의 내적 구조를 간단히 진술하면, 현재 뉴욕시 퀸즈지역에는 10개의 교파가 있는데 그중에 65%가 장로교파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감리교파(11%), 복음교파(6%)와 초교파(6%)의 순이다. 평균 교인수는 100명인데 교인수가 가장 많은 교회는 1,500명이고 가장 작은 교인수는 2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90%의 기존 교회들이 1975~1984년 사이에 세워졌고 1980년 이후 이민은 교인에 관해서는 35%의 교회가 교인 중의 50~65%를 차지하며 13%의 교회가 교인중 66~80%를 차지하며 28%가 교인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은 47세이고 총 목회경험연수는 평균 12년 6개월이다. 현재 교회의 담임목회 연수는 평균 3년 8개월이고 목회자들의 미국 거주 평균 연수는 9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체건물 소유 교회는 19교회이다.

담임 목회자들이 본 이민 교인들의 문제와 욕구에 관하여는 1980년 이전에 온 이민들에게는 부부문제, 정신건강문제가 가장 많이 진술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 온 이민들에게는 경제문제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언어문제는 양쪽 집단이 공통으로 갖는 문제라고 하였다. 서비스 필요로써 가장 많이(약 80%) 진술된 것이 자녀보호와 노인 주택문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국 이민들

의 전통적 가정의 구조적 붕괴, 부모들의 직업의 불만, 파로, 주류 사회와의 부조화, 주류 사회와의 격리,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심리적 격리등에서 오는 긴장이 가정 밖으로 나타나서 교회로 침투되고 또한 교인들의 신앙 수준의 차이, 미국 동화수준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교회는 이민 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 지지 체계인데 교회가 분열됨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문제, 개인의 문제로 교회들 사교장으로 나오는 교인들에게 많고 가족이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이 보는 외적인 압박을 영적인 훈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압박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이다. 즉 어려움은 영적 숙련 과정이라 간주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종 모임(구역회, 찬양대, 남녀 선교회, 제직회, 수양회 등)에서 느끼는 소속감,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교인으로부터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 개신교 교회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뉴욕市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몇개의 한국 교포 복지기관과 영리를 위한 수많은 교포 서비스기관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 즉 1980년 이후에 온 이민들에게 주택문제, 법적 문제 등을 위해 정보제공, 의뢰등의 서비스를 해주며 가정문제 상담등을 통계적으로 의미 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회에서의 담임 목회자의 직접 개입과 연관성이 있을 만한 여러가지 요소들 즉: 교인 수의 크기, 교회내 새 이민들의 비율 그리고 지역의 평균 가정 소득등을 chi-square로서 실증 교찰한 결과 새 이민의 숫자적 비율과 목회자의 직접 개입이 가장 의미 깊게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의미있지 않아도 가정 상담과 의뢰기관의 의뢰 등의 서비스는 저소득지역에 위치한 개신교 교회들이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뉴욕에 있는 개신교 교회는 한국 이민 교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로써 많은 인적 자원(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포함한) 교인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직업알선, 주택알선을 하고 사업의 단골이 되며,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앞서 말한 소집단 활동 이외에도 미국 사회에서는 노동일을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님 그리고 각 소집단의 임원진으로 교회내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특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초자연의 영적인 힘과 연결을 맺어 주므로써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체감을 갖게 함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 사회의 동화 과정을 돕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대부분(94%)이 동화서비스보다는 민족의식 동일화에 치중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동화 부조의 결과에 대해서 응답자들에 의하면 이민 교인들 자체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자원과 유대관계 및 응답자들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협조에 관하여는 91%의 응답자들이 지역사회 자원과는 유대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거기에 대한 지식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의 협조에 대해서는 거의 2/3의 응답자들이 복지기관과의 연결을 바라며 협조의 뜻을 표시하였다.

## VI. 討 議

1980년대의 뉴욕市 개신교 교회의 한국 이민들을 위한 역할을 볼 때 1970년대의 그것에 비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70년대에는 개신교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을 대행해서 한국 이민들 전반을 상대로 소위 제도적 보호를 했는데 비해 '80년대에 와서는 특정 이민들에게 보완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본다. '70년대는 이민들이 미국 정착생활에 필수로 요구되는 주택 및 직장알선, 의료, 법률부조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제반에 대한 정보제공 내지 교육프로그램, 영어교실의 제공, 소득세 보고법, 의사·약사·간호원 시험을 위한 훈련 그리고 미국 교회와 친교 등을 통해서 미국 동화과정을 적극적으로 부조를 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세워서 2세들에게 민족의식 동일화를 부조하는 등 구세계와 신세계의 다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개신교 교회의 사회복지는 주로



1980년도 이후에 온 이민들을 소규모적으로 돕고 있으며 동화면에는 거의 무관심하며 사회복지 범주보다는 영적인 범주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시 제기되는 의문은 개신교 교회의 새 이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역할이 교회의 사명으로 간주해서인지, 아니면 1980년 이후에 온 이민들이 보다 더 앞서 말한 분야에 서비스 욕구가 더 많은지 그리고 왜 이들은 먼저 온 친척이나 친구에게 가지 않고 목회자에게로 도움을 청하는지 하는 것이다.

뉴욕市の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한국 이민들의 도시생활에 있어서의 시간적 제한, 그리고 문화적인 근거에서 오는 체면유지습성 더 나아가서는 상기한 이민들의 문제들은 개인의 내적·정신적 결함에서 야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 사회와 한국 이민들과의 부조리, meso 체계의 결여, macro 체계의 이민들을 위한 사업결여 등의 전체로 볼 때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넓은 수준의 예방대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여러가지 교육사업을 들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간 또한 부부간의 효율적 대화 방법, 부모들을 위한 미국사회 교육,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영어교실 제공, 그리고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을 들 수 있고, 탁아와 방과후 학교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인력 자원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전술한 인력 부족에 대처해서 교회는 인력 자원개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연구 과정에서 추산한 것과 같이 뉴욕市の 한국 이민들의 60%가 한국 개신교 교인이므로 이들 교인들은 非敎人 이민들에게 여러가지 미국사회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내에서는 오래된 교인들은 새로운 이민 교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은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적 자원개발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전도사, 장로, 집사들을 교육시켜서 사례를 발견하여 뉴욕市の 한국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히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모들도 참여함으로써 교회와 전문사회복지기관과의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응답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54%가 가정문제를 담임 목회자와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응답자의 70%가 상담에 대한 보다 높은 훈련을 받기를

원했다.

세계로 뉴욕지역의 교회협의회가 큰 역할을 들 수 있다. 간절히 바라는 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 한인 교포들의 정치적 대표 기관이 되어 정신적 지도력을 가지고 연방, 주, 시 정부를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부녀자들을 위한 무료혜택, 아동보호, 이민들을 위한 법적·의료·주택 서비스, 이중언어 직업훈련개발 등을 위한 사회정책과 사업개발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관과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갖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은 개개의 교회 담임목회자들을 향해 지속적인 접근을 해서 기관의 기존 사업을 소개하고 교회는 복지기관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앞서 말한 예방대책을 위한 교육 내지 아동보호사업을 손잡고 실시하는 것이 간절히 요망된다. 개신교 교회는 여러 가지 자원과 의뢰자가 있고 전문사회복지기관은 전문지식이 있으므로 양 기관이 연합하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교회협의회 산하에 사회복지기관을 상설해서 교회와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접수일자 : 1988년 1월 19일)